

#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공간과 海印寺의 역할

최영호\*

## 〈목 차〉

- I. 머리말
- II. 강화경관 고려대장경 판각공간의 존재형태
- III. 판각공간으로서의 해인사
- IV. 맺음말

##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는 강화경관 고려대장경의 판각공간을 분석하는 동시에, 해인사가 13세기 중엽 강화경관의 조성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진단하였다.

조성사업의 초기부터는 고종 23년(1236) 이래 개별 경관의 판각 역량과 경험을 보유해 온 伽耶山의 下鉅寺(下鋸寺)와 海印寺 등과 같은 여러 사원들도 대장도감 소속의 판각공간으로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고종 32~33년에는 대장도감의 산하에 中房·東房·西房 등 최소한 3개소의 판각공간이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淸州牧의 분사대장도감의 경우는 진주목 이외, 고종 34년 당시 남해지역에도 그 판각공간 가운데 한 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판각공간 가운데 주목되는 사원이 가야산 일대에 위치한 하거사와 함께 해인사이다.

해인사는 13세기 중엽 강화경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이나 지리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기반과 조건은 강화경관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대장도감 산하의 판각공간이나 인적·물적 자원의 협력사원으로 재편·흡수되어 적극 활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해인사는 강화경관 조성사업의 과정에서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과 더불어 『大方廣佛華嚴經(晋本)』 및 『丹本大藏經』 등과 같은 원천 자료도 제공하였다고 짐작된다.

이로써 13세기 중엽 해인사는 강화경관의 조성사업을 통해, 사원 본연의 국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해인사팔만대장경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가·사회적인 책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고려의 전통적인 불교문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강화경관 고려대장경, 고려국대장도감, 고려국분사대장도감, 해인사, 중방, 동방, 서방, 판각공간

---

## I. 머리말

불교계나 관련 전문 연구자 및 일반 대중들은 가야산 해인사를 法寶寺院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7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어 우리나라와 더불어 세계 인류들의 보편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한 강화경관 고려대장경(일명: 팔만대장경, 이하 강화경관)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이들 대부분은 해인사가 13세기 중엽 강화경관 조성사업의 판각공간이나 협력사원으로 역할하면서 우리나라와 함께 동아시아사회의 한역대장경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 노력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해인사가 우리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순기능적으로 수행한 역사·문화적인 역할이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해인사가 13세기 중엽 강화경관의 조성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진단할 것이다.

기존의 일부 연구자들은 1990년대부터 이미 해인사가 강화경관의 판각공간으로 역할한 사례를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사례는 ‘外藏’<sup>2)</sup> 경판인 『金光明經』(해인사 소장본, 보물 743-1호)과 ‘大藏’ 경판인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의 각수 자료를 분석하여 제기되었다.<sup>3)</sup> 최근에는 고종 23년(1236) 6월 해인사에서 조성된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 경판(해인사 소장본, 보물 734-6호)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해인사가 13세기 중엽 강화경관의 조성과정에서 高麗國大藏都監(이하 대장도감)의 판각공간으로 역할한 사실과 그 참여의식을 탐색하기도 하였다.<sup>4)</sup> 한편 현존 경판

1)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이란 몽골의 침략으로 수도를 江華京(지금의 인천광역시)으로 옮긴 시기에 조성한 고려의 대장경판을 의미한다. 이들 경판은 강화경에 설치된 대장도감이나 그 산하의 판각공간과 함께 분사도감 및 그 산하의 판각공간에서 조성되었으며, 판각 공간으로는 아래에서 설명될 여러 사원이나 工房이 주목된다.

2) 강화경판 전체의 구성체제는 大藏과 外藏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장은 正藏·正板 등으로 지칭되며, 『大藏目錄』에 입장된 개별 경전의 모두를 포함한다. 외장은 『補遺板目錄』에 편제된 15종의 경전과 함께 소위 해인사의 寺·私刊本, 새로 발견된 분사도감판, 그리고 13세기 중엽 이후 새로 판각된 경판까지 아우를 수 있다.

金潤坤,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체제에 관한 一考, 『釜山女大史學』 10·11합, 부산여자대학교, 1993, 174쪽;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2002, 43~46쪽.

崔永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刻成事業의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8, 52~54쪽.

3) 金潤坤, 『高麗國 分司都監과 布施階層』, 『民族文化論叢』 1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8~80쪽; 金潤坤, 『高麗大藏經의 東亞大本과 彫成主體에 대한 考察』, 『石堂論叢』 2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6, 50~69·97쪽; 金潤坤, 『高麗大藏經』 조성의 참여계층과 雕造處, 『人文科學』 12,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118쪽.

의 나무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강화경관의 표면에서 먼 거리의 이동으로 생길 수 있는 마모 흔적이 없고, 해인사가 경관 판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벚나무와 돌배나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가야산에서 자란 거제수나무도 강화경관에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를 고려하여, 판각공간을 해인사 자체나 인근의 사원으로 파악하기도 하였기도 하였다.<sup>4)</sup>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우선, 13세기 중엽 조성된 강화경관의 판각공간에 대한 존재 형태를 파악할 것이다. 특히 판각공간이 한 곳이 아닌 다양한 지역적 공간에 설치·운영된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인사가 都監 산하의 여러 판각공간이나 협력사원들 가운데 한 곳으로 재편되어 역할한 사례를 다시 확인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13세기 중엽 강화경관 조성사업의 시작 당시까지 해인사가 보유한 경관 조성의 인적·물적 기반이나 역량과 더불어 그 공간으로 재편 과정에서 중심적으로 역할한 인물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로써 해인사가 13세기 중엽 고려사회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불교문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 역사·문화적인 순기능을 진단하는 동시에, 강화경관의 조성사업에 대한 崔氏武人政權 중심의 이해 방식<sup>6)</sup>을 극복하여 그 역사·문화적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II. 강화경관 고려대장경 판각공간의 존재형태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강화경관의 판각공간을 大藏都監과 高麗國分司大藏都監(이하 분사도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장

4) 崔永好, 「13세기 중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刻成事業과 海印寺」, 『한국중세사연구』 13, 한국중세사학회, 2002 ;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조성기구와 판각공간』,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세종출판사, 2009, 124~151쪽.

5) 朴相珍, 「고려대장경판의 재질로 본 판각지에 대한 고찰」, 『人文科學』 12,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 김영사, 2007, 184~185쪽.

이 견해도 일면 타당성을 가지나, 판각공간을 강화도지역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6) 기존의 대부분 연구자들이 조성주체를 崔氏武人政權, 그 조성공간을 江華京의 禪源社와 景南南海의 두 곳이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도감의 소재지를 江華島나 禪源社(禪源寺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로, 분사도감의 경우를 淸州·南海지역 등지로 파악하였다. 이로써 강화경판의 大藏都監板은 강화도나 선원사에서, 分司都監板은 남해지역이나 定林寺((江月庵 : 지금의 경상남도 남해군) 및 진주지역에서 각각 판각하였다고 하였다.<sup>9)</sup> 특히 근자에는 강화경판의 전체가 해인사나 그 인근 사원,<sup>9)</sup> 南海分司都監의 한 곳<sup>10)</sup>에서 판각되었다는 독특한 견해도 제시되었으며, 후자의 견해는 학계의 보편적인 내용처럼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sup>11)</sup>

이에 비해, 일부 연구자들은 1990~2000년대부터 기존의 도감이나 판각공간 위치에 대해 새롭게 진단하고 있다. 그 가운데 江華京의 선원사가 조성사업의 시작 10년 이후에 창건되었기 때문에,<sup>12)</sup> 대장도감이나 강화경판의 판각공간이

7) 大藏都監과 강화경판의 판각공간이 선원사에 설치되었다는 견해(文明大, 『大藏都監禪源寺址의 發見과 高麗大藏經板의 由來』, 『韓國學報』 3, 1976; 黃壽永·文明大, 『高麗禪源寺址 發見과 高麗大藏經板의 由來』, 『江華島學術調查報告書』 1책, 東國大學校 江華島學術調查團, 1977)가 제기된 이후, 역사학·서지학·불교문화사 분야에서도 그대로 수용하면서 1990년대까지 학계의 정설처럼 이해되기도 하였으며, 근자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수용하기도 한다.

俞瑩淑, 『崔氏武人政權과 曹溪宗』, 『白山學報』 33, 1986, 180쪽; 손영중·조희성, 『조선수공업사』, 공업출판사, 1990, 373쪽; 許興植, 『高麗高宗官版大藏經의 雕成經緯와 思想性』, 『歷史教育論集』 13·14합, 1990;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일조각, 1994, 168~169쪽; 金甲周, 『高麗大藏都監 研究』, 『不聞聞』 창간호, 영취불교문화원, 1990, 135~137쪽; 文暲鉉, 『高麗大藏經 雕造의 史的 考察』, 『佛敎와 역사』, 李箕永博士古稀紀念論叢, 1991, 515쪽;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119쪽; 金光植, 『高麗武人政權과 佛敎界』, 민족사, 1995, 227~228·254~262쪽; 金聖洙, 『13世紀 前期 刊行佛書의 分析』, 『書誌學研究』 27, 서지학회, 2004, 181쪽.

8)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위치와 그 판각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정리되었다.

崔永好, 『13세기 중엽 경주지역 分司東京大藏都監의 설치와 운영형태』, 『新羅文化』 2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앞의 책(2009); 崔永好, 『南海地域의 江華京板『高麗大藏經』각성사업 참여』, 『石堂論叢』, 2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7, 251~253쪽; 앞의 책, 33~51쪽; 최영호,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조성사업에 대한 근대 100년의 연구사 쟁점』, 『石堂論叢』 4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9, 155~156쪽.

한편 해인사에서 편찬한 『伽倻山海印寺誌』(伽山 李智冠 편저, 伽山文庫,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출판부, 1992, 203~204쪽)에서도 선원사에서 대장도감판을, 진주에서 분사도감판을 판각하였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

9) 朴相珍, 앞의 논문; 앞의 책(2007).

10) 朴相國, 『大藏都監의 板刻性格과 禪源寺 問題』, 『韓國佛敎文化史』 상,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 1992, 999쪽.

11) 朴相國, 『대장도감과 고려대장경판』, 『한국사』 21, 국사편찬위원회, 1996, 115~117쪽.

12) 金坵, 『臥龍山慈雲寺王師贈諡眞明國師碑銘』, 『東文選』 권117, 碑銘 및 『止浦集』 권3, 碑銘. 蔡尙植, 앞의 책, 19쪽, 주38); 朴相國, 앞의 논문(1992), 1004~1006쪽; 金光植, 앞의 책, 255쪽.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sup>153)</sup> 아울러 慶州·伽耶山 등 三南지역에 판각공간이 존재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된<sup>154)</sup>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곳에 분산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다는 새로운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13세기 이전까지 계속된 서적 간행 및 대장경판의 조성체제와 함께 강화경판에 입장된 大藏의 刻手·刊記 자료, 그리고 13세기 당시에 만들어진 문집류 및 寺·私刊 經板의 誌·跋文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당시 수도인 江華京과 몽고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던 일부의 界首官을 중심으로 각각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이 설치·운영되었으며, 분사도감의 판각공간이 江華京에도 존재하였다고 이해하는<sup>155)</sup> 한편, 南海分司都監도 각지에 분산·설치된 여러 판각공간 가운데 한 곳으로 진단하게 되었다.<sup>156)</sup> 특히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이전부터 개별 경판 판각의 인적·물적 능력이나 기반을 가지고 있던 伽耶山의 海印寺·下鉅寺(下鋸寺)와 산청의 斷俗寺 및 東京(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 관내의 東泉社(寺)·堀玄寺, 昇平郡(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군)의 修禪社 등과 같은 전국의 여러 큰 사원들도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판각공간으로 재편되어 활용된 사례를 분석하기도 하였다.<sup>157)</sup> 이로써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산하에 설치·운영된 여러 판각공간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江華京의 고려 조정은 강화경판의 판각공간을 여러 지역에 분산·설치함으로써 몽고 침략으로부터 판각공간의 일괄 파괴 및 그 전문 현장인력

153) 朴相國, 위의 논문(1992), 1004~1006쪽; 崔永好, 앞의 박사학위논문, 23~24쪽; 앞의 책(2008), 105~106쪽; 崔永好, 앞의 논문(1997), 251~253쪽; 앞의 책(2009).

154) 藤田亮策, 『海印寺雜板攷』, 『朝鮮學報』 138, 1991, 41~48·64쪽.

155) 金潤坤, 『高麗大藏經의 造成機構의 刻手의 成分』,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상, 碧史李佑成 教授停年退職紀念, 1990, 235쪽; 앞의 『高麗國 分司都監과 布施階層』 논문(1996), 60~80쪽; 앞의 책, 134~137·157쪽.

156) 金潤坤, 앞의 『高麗大藏經의 東亞大本과 彫成主體에 대한 考察』 논문(1996); 앞의 책, 123·157~158쪽; 崔永好, 앞의 논문(1997); 앞의 책(2009).

157) 金潤坤, 앞의 『高麗國 分司都監과 布施階層』 논문(1996); 앞의 『高麗大藏經의 東亞大本과 彫成主體에 대한 考察』 논문(1996); 앞의 『高麗大藏經』 조성의 참여계층과 雕造處』 논문(1998), 117~118쪽; 위의 책, 159~183·508~565쪽; 崔然柱, 『高麗大藏經』 刻成人의 참여형태와 彫成空間』, 『한국중세사연구』 16, 한국중세사학회, 2004; 『修禪社와 강화경판』 『고려대장경』 彫成』, 『大丘史學』 81, 대구사학회, 2005; 『高麗大藏經 研究』, 경인문화사, 2006; 崔永好, 『海印寺 所藏本』 『大方廣佛華嚴經疏』·『大方廣佛華嚴經疏流演義鈔』의 판각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 한국중세사학회, 1997; 崔永好, 앞의 논문(2002); 崔永好, 앞의 『13세기 중엽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조성공간과 경주 東泉社』 논문(2006); 崔永好, 앞의 박사학위논문; 앞의 책(2008); 최영호, 앞의 책(2009).

의 대량 손실에 따른 조성사업의 중단을 예방하는 동시에, 그 사업의 목적을 모든 고려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어 대내적 일체감이나 전통 불교문명의 우월성도 가지게 할 수 있었으며, 당시까지 전국의 界首官 및 사원이 보유·운영하고 있던 출판·인쇄사업의 조직체계나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8)</sup> 본 조성사업에는 13세기 중엽 당시 여러 지역에서 분산·활동하고 있던 다양한 출신의 세속인과 승려층들이 사업의 실무자나 각수 등과 같은 형태로 적극 참여하였으며, 여러 지역 사원의 물적 자원도 지원되고 있었는데,<sup>19)</sup>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판각공간이 기존의 판각기반을 보유한 사원이나 계수관 등을 재편하여 운용했다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강화경판의 大藏에 입장된 개별 경판들에 연결된 장식의 제작공간이 여러 곳에 운영된 사실을 통해서, 강화경판 개별 경판의 판각공간도 여러 공간에 분산적으로 설치·운영되었을 개연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현존 경판의 장식들은 그 모양이나 규격 및 못을 박을 수 있는 위치 등에 따라 대개 6~7종류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sup>20)</sup> 이러한 사실은 13세기 중엽 장식을 제작하는 현장 工房이 최소 6개소 정도나 설치·운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sup>21)</sup> 이처럼 장식의 제작 공방이 다양한 공간에 설치·운영되었다고 한다면, 개별 경판을 직접 판각하는 공방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3세기 중엽 강화경판의 판각 工房도 여러 지역적 공간에 설치·운영된 사례들이 확인된다. 淸州牧의 분사도감의 경우는 진주목 이외, ‘丁未歲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라는 간기<sup>22)</sup>에서 알 수 있듯이, 고종 34년(1247) 당시 남해지역도 그 판각공간 가운데 한 곳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다.<sup>23)</sup> 아울러 대장도감의 경우도 여러 판각 工房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 일부의

18) 金潤坤, 앞의 책, 186쪽.

19) 이와 관련된 최근의 글은 다음이 참조된다.

金潤坤, 앞의 책, 134~137·157쪽; 崔永好, 『華嚴宗系列 승려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작성 사업의 참여』, 『釜山史學』 29, 부산사학회(부산경남사학회), 1995; 崔永好, 앞의 박사학위논문; 앞의 책(2008)

20) 李泰寧 編, 『제8장 경판 마구리 금속 장식판 및 못의 性狀』, 『八萬大藏經板 보존을 위한 기초 학술 연구』, 海印寺, 1996, 125~127쪽.

21) 崔永好,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31, 한국중세사학회, 2011, 355~357쪽.

22) 『宗鏡錄』 권27(富函), 제17장.

23) 崔永好, 앞의 책(2009), 194쪽.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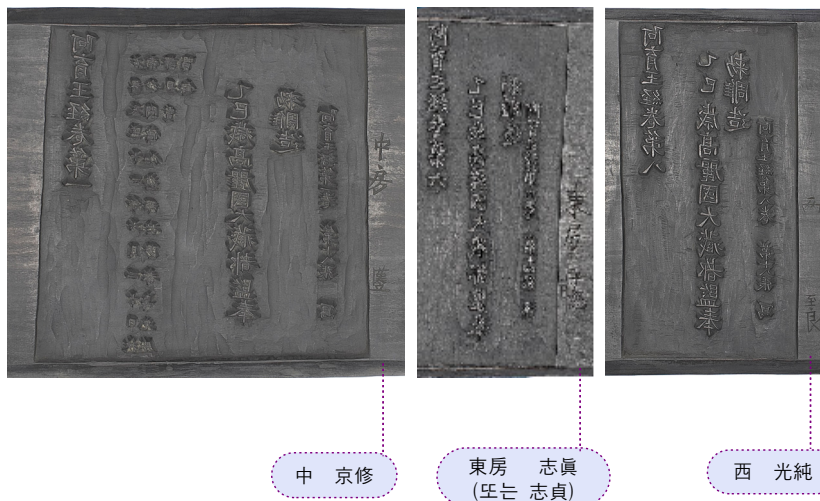
[표 1]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판각工房 존재 사례

순	표기 형태	시기	조성 도감	출전	비고
1	中房 漢立	1245년(乙巳歲)	大藏都監	『阿育王經』 권1, 18장	사진 1-1
2	東房 守聰	"	"	같은 경전 6권, 14장	사진 1-2
3	西 至良	"	"	같은 경전 8권, 18장	사진 1-3
4	中 京修	1246년(丙午歲)	"	『破邪論』 권상, 36장	사진 1-4
5	東房 志眞	"	"	『南海寄歸內法傳』 권4, 34장	사진 1-5 또는 志眞
6	西 光純	"	"	같은 경전 권2, 30장	사진 1-6

※ 본 표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의 사이버장경판전(<http://www.i80000.com>)에 소개된 디지털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이하 동일자료.

[사진 1]

1. 『阿育王經』 권1, 18장    2. 『阿育王經』 권6, 14장    3. 『阿育王經』 권8, 18장



4. 『破邪論』 권상, 36장      5. 『南海寄歸內法傳』 권4, 34장      6. 『南海寄歸內法傳』 권2, 30장



고종 32년(1245)과 같은 왕 33년 대장도감에서 판각된 개별 경판들에는 ‘中房 漢立’,<sup>24)</sup> ‘東房 守聰’, ‘西 至良’, ‘中 京修’, ‘東房 志眞’, ‘西 光純’ 등과 같이 공방과 함께 각수의 범명·성명이 판각되어 있다. 이 가운데 [표1]<sup>25)</sup>-4의 中은 중방을, 3·6의 西는 서방을 약칭으로 나타낸 것이다. 1의 中房이라는 표기는 4에서 中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2·4의 東房이라 표기는 고종 32년에 판각된 대장도감 조성경판에서 ‘東 永眞’<sup>26)</sup>이나 ‘東 成進’<sup>27)</sup>과 같이 東으로만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표기 사례에서, 해당 공방의 표기 방식에는 房자를 생략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中房은 을사년 대장도감 조성경판을 판각한 戒如와 白靑이 ‘衆 戒如’<sup>28)</sup>와 ‘衆 白靑’<sup>29)</sup>이라고 각각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동음이자의 衆房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표 1]의 표기 형태는 각수 한림·수충·지량이

24) [표 1]의 자료들 가운데 1의 漢자를 英자로, 聰자를 聽자로, 西자를 兩자로 각각 판독(朴相國의,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日本 大谷大學 所藏 高麗大藏經-』,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257·374쪽)하여 소개하였으나, 원판본의 사진 자료를 확인하여 바로잡았다. 그 외의 자료는 새롭게 확인하여 소개한다.

25) 본 표는 다음의 글에서 활용하였던 것을 재인용하였다.

崔永好, 앞의 논문(2011), 353쪽.

26) 『舍利弗阿毗曇論』 권4(京函), 33장.

27) 『根本薩婆多部律攝』 권9(母函), 25장.

28) 『阿毗達磨識身足論』 권14(連函), 22장.

29) 『舍利弗阿毗曇論』 권11(背函), 28장.

고종 32년 대장도감 소속의 중방·동방·서방에서, 경수·지진(또는 지정)·광순이 같은 왕 33년 중방·동방·서방에서 각각 활동하면서 해당 경판을 판각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고종 32~33년에는 대장도감의 산하에 중방·동방·서방 등 최소한 3개소<sup>30)</sup>의 판각공간이 설치·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중방·동방·서방 등과 같은 판각공간의 조직체계는 초기 판각공간의 조직체계를 재편한 형태인지, 또는 새롭게 설치·운영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이 조직체계는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중반기인 고종 32~33년 전후부터 개별 경판에 표기되어 있었으므로 이 시기에 새롭게 설치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이에 비해 조성사업의 초기부터는 고종 23년 이전부터 개별 경판의 판각 역량과 경험을 보유해 온 가야산의 下鉅寺(下鉅寺) 등과 같은 여러 사원들도 대장도감 소속의 판각공간으로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재편된 판각공간들 가운데 주목되는 사원이 가야산 일대에 위치한 하거사와 더불어 해인사이다.

### III. 판각공간으로서의 해인사

해인사가 13세기 중엽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판각공간으로 역할한 근거 자료는 현재 해인사 소장인 『金光明經』(보물 743-1호) 및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sup>31)</sup>와 더불어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

30) 최근에는 『阿育王經』 권1·8(寫函)의 말미 부분에서 中房·東房의 확인 사례를 근거로 각수들의 소속 작업장을 東·西·南·北·中房 등 5房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朴相國, 앞의 글, 2008, 374쪽). 이러한 추정은 일면 타당성이 가지기도 하나, 향후 관련 자료의 확보를 통한 확인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중방·동방·서방이 지역적 공간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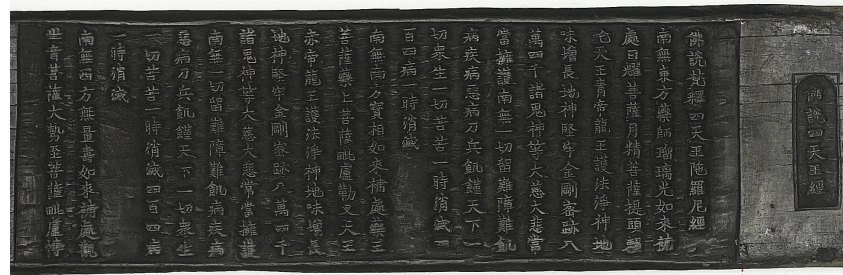
31) 金潤坤, 앞의 『高麗大藏經의 東亞大本과 彫成主體에 대한 考察』 논문(1996), 50~69·97쪽; 앞의 책, 514~515·529~530쪽.

현재 해인사에는 『金光明經』 및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의 경판을 각각 2종류가 보관되어 있다. 『金光明經』은 고종 31년(1244) 분사도감 등에서 판각된 4권 48판의 경판과 판각 시기·장소를 표기하지 않은 4권 51판의 경판이 있으며,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은 고종 32~34년 대장도감에서 판각된 10권 126판의 경판과 함께 같은 왕 31~32년 대장도감·분사도감에서 판각된 10권 121판의 경판이 있다. 이들 가운데 전자의 두 경판류(48판·126판)를 동국대본으로, 후자의 두 경판류(51판·121판)를 동아대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따

(보물 734-6호)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당시 해인사에서 조성 사실을 표기한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의 경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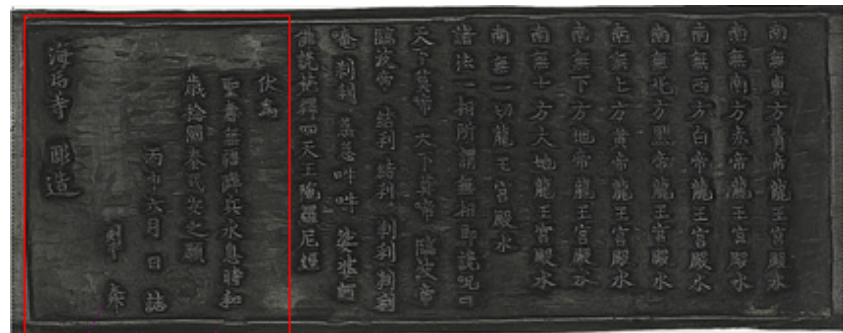
[사진 2] 해인사 소장의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sup>32)</sup>

1. 전면



大升

2. 뒷면



大升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의 지문

본 경판은 앞 계선 밖의 가운데 佛說四天王經이라는 略經名の 표지 제목이 □안에 양각되어 있고, 앞 계선의 하단 부분에 본문 보다 작은 글자

라서 이 글에서도 이 명칭을 차용하였다. 물론 『金光明經』의 51경판류는 보물 743-1호로 구분되어 있으나,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의 두 경판은 현재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의 명칭을 차용한다. 이들 가운데 해인사가 조성공간으로 역할하였다고 하는 근거 자료는 동아대본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해인사가 分司都監板의 조성공간 가운데 한 곳으로 추정하였다.

<sup>32)</sup> 본 사진 자료는 해인사팔만대장경연구원의 도움으로 확보하였다. 본 연구원의 보존국장 성안스님께 감사드린다.

로 大升이 판각되어 있다. 그리고 앞 면의 1행에는 佛說梵釋四天王陁羅尼經라는 권수제를 이어서 본문이 표기되어 있으며, 뒷 면에는 본문 내용과 함께 佛說梵釋四天王陁羅尼經라는 권미제와 그 다음 부분에 아래 내용의 지문이 배치되어 있다.

옆드려 다음과 같이 기원합니다. 황제의 수명은 끝이 없고 이웃 병사들의 침략은 영원히 종식되며, 시절은 조화로워 곡식이 풍년들며,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들은 평안하길 바랍니다. 병신년 6월 어느 날에 기록합니다. 각수는 大升입니다. 해인사에서 경판을 새겨 만들었습니다.<sup>35)</sup>

이 지문에서는 고려의 황제인 고종의 수명이 끝이 없고, 이웃 군사인 몽고군의 침략이 영원히 종식되며, 해마다 풍년이 들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문을 쓰고 판각한 시기가 丙申年 6월이며, 각수 大升이 해인사에서 경판을 판각하였다는 사실을 표기해 두고 있다.

이 병신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자들이 각각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시기의 해명을 보류한 경우<sup>34)</sup>가 있는가 하면, 고려시대<sup>35)</sup> · 고종 23년(1236)<sup>36)</sup> · 충렬왕 22년(1296)<sup>37)</sup> · 공민왕 5년(1356)<sup>38)</sup>처럼 다양하게

<sup>35)</sup>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伏爲  
聖壽無疆隣兵永息時和  
歲稔國泰民安之願  
丙申 六月 日 誌  
刻手 大升  
海印寺 彫造

<sup>34)</sup> 崔凡述, 『海印寺寺刊鑿板目錄』, 『東方學志』 11, 연세대, 1970, 38~39쪽; 成均館大學教 中央圖書館, 『古書目錄』, 1979, 253쪽.

특히 이 『古書目錄』에서는 丙申年을 丙辰年이라 잘못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sup>35)</sup> 慶尙南道, 『慶尙南道文化財大觀(國家指定編)』, 1995, 170쪽.

<sup>36)</sup> 千惠鳳, 『韓國 書誌學』, 민음사, 1991, 161쪽; 趙海奉, 『高麗 典籍의 集散에 관한 研究』, 『고려시대연구』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378쪽; 朴相國, 『慶南의 寺刹所藏 經板考』, 『文化財』 15, 문화재관리국, 1982, 58쪽; 藤田亮策, 앞의 논문, 62~63쪽; 金潤坤, 앞의 책, 512쪽.

<sup>37)</sup>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탐구당, 1974, 103쪽. 한편 이 책에서는 위의 誌文을 鄭奮, 즉 鄭晏이 지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 『고려사』 권100, 鄭世裕 부 鄭晏傳;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38년 5월에는 崔沆이 집권하던 1251년(고종 38년) 5월에 정안을 죽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안이 충렬왕 때 활동하면서 『佛說梵釋四天王陁羅尼經』의 誌文을 썼다는 것도 사실과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정안의 경판 조성사업의 참여사례와 그의 성향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재검토되었다.

해석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가 기관인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 서비스와 경상남도에서 간행하였던 『慶南文化財大觀(國家指定編)』(1995)에서도 그 시기의 파악을 보류하거나 고려시대라고 막연하게 해설하고 있다. 그런데 본 경판에 판각된 조성시기의 표기방식과 더불어 誌文 내용의 서술방식, 각수의 활동시기 등을 분석하여 고종 23년으로 확정하고 있다.<sup>39)</sup> 시기의 표기 형태가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丙申이라는 干支만으로 나타내고, 지문의 내용 가운데 고려 국왕을 황제의 위격인 ‘聖’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며, 각수 大升이 고종 24~26년에도 경판의 판각활동<sup>40)</sup>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이 조성된 병신년은 고종 23년이 분명하다고 진단하였다.

이로써 고종 23년 해인사에서는 개별 경판을 조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하여 판각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당시 조성기반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의 경판은 현재 1판 2장이 남아 있는데, 완전한 판본<sup>41)</sup>이 아니라 불완전 결본이다.<sup>42)</sup> 본 경판이 1판 양면으로 판각되어 있고, 앞면의 1행과 뒷면 마지막 본문 다음이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이라는 권수제와 권미제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서지학적인 구성형태에서는 완전 판본이라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판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면 결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경판 앞면의 마지막 20행에는 끝 부분의 내용이 ‘大勢至菩薩毗盧博’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다음면의 1행에는 첫 부분의 내용이 ‘南無東方青帝龍王宮殿水’라고 되어 있다. 앞면의 ‘毗盧博’은 ‘毗盧博叉天王’이라는 천왕 명칭 가운데 ‘叉天王’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현존하는 본 경판은 불완전하다고 확정할 수 있으며, 그 규모

崔永好, 앞의 『南海地域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참여』 논문(1997) ; 앞의 책(2009) ; 崔永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刻成事業의 주도층』,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金潤坤敎授停年紀念, 2001 ; 앞의 책(2008).

38) 徐首生, 『海印寺의 寺刊 藏經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6, 1969, 65쪽.

본 논문에서는 충렬왕 23년일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39) 藤田亮策, 앞의 논문, 63쪽 ; 崔永好, 앞의 『海印寺 所藏本 『大方廣佛華嚴經疏』·『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의 판각성격』 논문(1997), 137~140쪽 ; 崔永好, 앞의 논문(2002), 111~114쪽 ; 崔永好, 앞의 박사학위논문, 131~131쪽 ; 앞의 책(2008) ; 崔永好, 앞의 책(2009), 127~131쪽.

40) 각수 大升은 고종 33년(1246)에도 大藏都監板을 직접 판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것이다.

41) 徐首生, 앞의 논문, 65쪽 ; 崔凡述, 앞의 논문, 38~39쪽 ; 朴相國, 앞의 논문(1982), 58쪽 ;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 문화재관리국, 1987, 409쪽.

42) 藤田亮策, 앞의 논문, 62쪽.

는 최소 2장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고종 23년 6월 당시에는 해인사가 최소 2장 이상으로 구성되는 개별 경전의 경판을 직접 판각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해인사의 이러한 판각기반과 경험은 13세기 이전부터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광종 때 諦觀이 찬술한 『天台四教儀』가 선종 6년(1089) 2월 해인사에서 다시 간행되었으며,<sup>43)</sup> 숙종 3년(1098) 3월 迦耶山(伽倻山) 해인사의 依止僧인 成軒이 『大方廣佛華嚴經(晋本)』(국보 206-16호, 해인사 소장본) 권45를 開板·布施한<sup>44)</sup> 사실에서, 해인사는 11세기 후반에도 경판의 판각공간이나 그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숙종 3년 陝州(현재의 합천군)戶長同正 李必先과 같은 지역의 토착세력들도 『大方廣佛華嚴經(晋本)』(국보 202호) 권37을 조판·보시하는<sup>45)</sup> 등 경판의 판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필선은 고려전기부터 중앙에 진출하였던 士族과 달리 합천지역의 戶長職을 세습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吏族 출신일 것이다.<sup>46)</sup> 이처럼 李必先이 戶長으로 합천지역의 邑司組織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그가 주도한 경판의 조성사업에는 합천지역이나 그 주변지역의 토착세력과 함께 지역의 일반백성들도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47)</sup> 그 결과 합천지역사회에는 불교문화 및 출판·인쇄술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해인사는 지역사회의 백성들과 빈번하게 교류하면서 教·俗 간의 협조체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43) 金煥泰, 『韓國佛敎古典名著의 世界』, 민족사, 1994, 180쪽; 천혜봉, 앞의 논문(2000), 306쪽.

44) 해인사에 소장된 본 경판의 권45, 21장은 중복판이며, 그 가운데 현재 성보박물관에 음역 다음에 아래의 識語가 있는 판본이 보존되어 있다. 藤田亮策의 『海印寺雜板攷』(『朝鮮學報』 139, 1991, 111쪽)에서는 ‘迦耶山海印寺依止僧 成軒 特爲/ 天長地久之願 施財開此卷普施/ 壽昌四年戊寅三月 日謹記’라고 판독하였으나, 원래의 판본에는 ‘迦耶山’이 ‘伽倻山’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45) 국보 202호인 『大方廣佛華嚴經(晋本)』 권37의 권미제 및 音義 다음에는 아래의 記文이 표기되어 있다. 이 기문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자들이 소개하고 있으나, 잘못 판독된 부분이 있어 원문 내용의 확인(국가기록유산 : <http://www.memorykorea.go.kr>)정치를 거쳐 다시 소개하였다. 高麗國陝州戶長同正李 必先 上報/ 四恩下滋三有之願施財雕版花嚴經/ 第三十七卷時 壽昌四年五月 日記.

46) 합천 지역의 토성세력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조된다.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1984, 207~208쪽.

47) 향리층이 주도한 佛事に 지역사회 및 주변 지역의 향리층과 일반백성이 참여한 사례는 다음 글에서 소개되었다.

蔡雄錫, 『高麗時代 香徒의 社會的 性格과 變化』, 『國史館論叢』 2, 국사편찬위원회, 1989, 97~105쪽; 崔永好,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의 발전기반과 그 운영』, 『國史館論叢』 95, 국사편찬위원회, 2001, 168~169쪽.

것이다.<sup>48)</sup>

이처럼 해인사는 11세기말부터 사원 내부에 경판의 판각시설과 그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내부에 거주하였던 토착세력이나 일반 백성들과 협조체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까지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해인사는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교정과정에서 핵심적 기반이 되는 원전 텍스트 자료와 더불어 그 불교 교학적 능력을 13세기 중엽 이전부터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우선, 위에서 언급된 숙종 3년 조성의 『大方廣佛華嚴經(晉本)』이 주목된다. 본 경전은 1행 17자의 率更體(歐陽詢體·大藏經體)로 강화경판의 大藏에 입장된 3본 화엄경판의 행자수와 더불어 서체 등이 동일하다. 때문에 본 『大方廣佛華嚴經(晉本)』도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원전 자료로 채택·활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해인사는 11세기 말 이래 이 경판을 판각하면서 『大方廣佛華嚴經(晉本)』에 대한 교학적 연구능력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이 경전은 화엄종에서 중시한 소의 경전이므로 그 종단에 소속한 해인사는 13세기 중엽까지도 화엄교학 등의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을 것이다.

다음으로, 해인사는 요나라의 『丹本大藏經』 인경본을 소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예종 때 慧照國師가 국왕의 명령을 받들고 서쪽으로 유학하여 遼本大藏經 3부를 구입하여 귀국하였다. 1부는 지금 定惠寺에 봉안되어 있다[海印寺에도 1본이 있으며, 許參政 택에도 1본이 있다].<sup>49)</sup>

『丹本大藏經』 인경본은 12세기 중엽인 예종 때 수입되어 一然이 『三國遺事』를 저술하던 13세기 말까지 해인사도 봉안하고 있었다. 이 대장경은 우리나라의 國本(초조대장경) 및 송나라의 宋本(開寶勅版大藏經)과 함께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원전·교정 자료로서 핵심적인 원전 텍스트가 되었다.<sup>50)</sup> 이 대장

48) 불교 조형물이나 경판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운영형태와 그에 따른 교·속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조된다.

崔永好, 앞의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의 발전기반과 그 운영』 논문(2001), 175~181쪽.

49) 本朝睿廟時, 慧照國師奉詔西學, 市遼本大藏三部, 而來. 一本今在定惠寺[海印寺有一本, 許參政宅有一本](『三國遺事』 권3, 塔像4, 前後所藏舍利). 한편 요나라의 『丹本大藏經』은 거란 조정이 수차례에 걸쳐 고려사회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공식적인 경우는 문종 17년(1063), 숙종 4년(1099) 4월, 예종 2년(1107) 정월이다(『고려사』 권8, 문종 17년 3월 병오 및 권11, 숙종 4년 4월 정해 및 권12, 예종 2년 정월 경인).

50) 守其, 『高麗國新雕藏經校正別錄』; 蔡尙植, 『국역高麗國新雕藏經校正別錄研究』, 동국대학교

경은 강화경관의 조성과정에서 편입된 경전이 18종, 교정의 저본으로 사용된 경전이 42종, 번역자·내용·卷次의 대조본으로 활용된 경전이 57종이나 되는 등 그 원천 텍스트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丹本大藏經』 인경본이 12세기 중엽에 수입된 이후 13세기 중엽까지 거의 1세기동안 가야산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었다. 이처럼 1세기 정도 본 대장경의 인경본이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었다면, 불교교학을 증시한 화엄종 소속의 해인사에서는 그 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상당한 수준의 화엄 교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교학적 연구 역량을 축적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해인사는 11세기 말~12세기 중엽 이래 13세기 중엽까지 강화경관 조성사업에서 원천 텍스트가 되는 『大方廣佛華嚴經(晋本)』이나 『丹本大藏經』 인경본 등을 소장하는 동시에, 이들 경전이나 대장경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다양한 교학연구 역량을 축적한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울러 해인사에서는 경전 교정의 전문 인력과 더불어 경관의 조성사업에서 경관 판각의 각수 인력 및 판하본 작성의 필사 인력도 확보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각수 인력은 뒤에서 설명될 大升 등이다. 필사 전문 인력은 선종 6년 2월 『天台四教儀』의 경관과 숙종 3년 『大方廣佛華嚴經(晋本)』 경관의 조성과 더불어 고종 23년 6월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의 경관을 해인사에서 조성할 때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경관의 서체도 강화경관과 같은 率更體라는 사실에서, 해인사는 이미 11세기 말 이래 13세기 중엽까지 판하본의 전문 제작 인력도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인사는 이러한 필사 전문인력을 14세기 중엽까지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충혜왕 원년(1331) 12월 工人을 모집하고 道俗에게 널리 勸緣하여 완성한 『三十八分功德疏經』(국보 206-11호) 경관의 판각사업에 해인사의 전문 필사 승려가 관여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 경관의 필사를 담당한 승려는 그 법명이 體元, 시호가 覺海大師라 하였던 向如(木庵)로, 당시 海印寺 典炷의 위치에 있었다.<sup>51)</sup> 그는 住持 大師의 위치에 있으면서 시기 미상의 『大方廣佛華嚴經(晋本)』 권13을 銀字로 補書하기도 하였다.<sup>52)</sup>

역경원, 1994 ; 배상현, 『高麗國 新雕大藏校正別錄과 守其』, 『民族文化論叢』 1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 金潤坤, 『고려 '國本' 대장경의 혁신과 그 배경』, 『民族文化論叢』 2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3 ; 柳富鉉, 『高麗再雕大藏經에 收容된 契丹大藏經』,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4 ; 妻木直良, 『契本に於ける大藏經雕造の事實を論』, 『東洋學報』 2, 1912.

51) 蔡尙植, 앞의 책, 198~199쪽.

52) 李基白 편, 『紺紙銀字 大方廣佛華嚴經 卷第13(晋)寫經 跋文』,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일

이들 전문 인력들 가운데는 成軒<sup>55)</sup>이나 向如처럼 해인사 소속의 승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각수 大升과 같이 그 소속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소속이 불명확한 인물들도 해인사 내지 이와 같은 종파의 화엄종 승려였을 것이다. 특히 大升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sup>54)</sup> 고려 후기 특정 사원에서 주도한 불교 조형물이나 경관 등의 조성불사에는 같은 계열의 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관리 인력·전문 僧匠·현장 노동력의 지원과 교류가 상당수 있었으며, 고려말기에는 일반적인 형태가 되기도 하였다.<sup>55)</sup> 이는 가야산에 위치한 화엄종 소속의 下鉅寺(下鋸寺)<sup>56)</sup>와 관련된 조성불사의 운영형태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하거사에서 高宗 38년(1241) 『大方廣佛華嚴經疏』·『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의 두 경판을 조성하면서 같은 계열에 소속된 龍壽寺 社堂의 비구인 玄揆에게 총 책임자인 主張의 직무를 맡겼으며,<sup>57)</sup> 하거사의 주지 禪圭는 高宗 3년(1377) 같은 종단인 浮石寺의 주지 因(圓)應이 주관한 부석사 祖師堂을 조성하는 佛事에도 관여하였다.<sup>58)</sup> 이처럼 13~14세기에는 화엄종단이 내부의 분과주의를 극복하면서 관련 사원의 불사에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해인사에서 주관한 개별 경관의 조성불사에 관여한 大升 등 전문 인력들도 해인사 내지 그와 같은 계열의 사원에서 확보한 인물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해인사는 13세기 중엽에도 佛事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보완할 수 있는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사, 1987, 290쪽; 張忠植, 『韓國寫經目錄』 『佛教美術』 7, 1983.

53) 해인사 의지 승려 成軒이 『大方廣佛華嚴經(晉譯華嚴經)』의 조성과정에서 사업을 주관한 역할 이외, 그 구체적인 역할을 알 수 없으나, 記文을 쓴 것으로 보아 필사자의 분단했을 개연성도 있을 것이다.

54) 崔永好,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6, 131~132쪽; 앞의 책(2008); 崔永好, 앞의 『華嚴宗系列 승려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의 참여』 논문(1995), 107~108쪽; 정동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造成的 參與僧侶層과 對蒙抗爭, 『嶠南史學』 7, 영남대학교, 1996.

55) 崔永好, 앞의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의 발전기반과 그 운영』 논문(2001), 165~167쪽.

56) 權相老, 『韓國寺刹事典』 下, 退耕堂權相老博士全書刊行委員會, 梨花文化出版社, 1994, 503쪽;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503쪽; 崔永好, 앞의 『華嚴宗系列 승려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의 참여』 논문(1995), 106쪽; 崔永好, 앞의 『海印寺 所藏本 『大方廣佛華嚴經疏』·『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의 판각성격』 논문(1997), 146쪽; 앞의 책(2009), 138쪽.

57) 崔永好, 앞의 『海印寺 所藏本 『大方廣佛華嚴經疏』·『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의 판각성격』 논문(1997); 앞의 책(2009), 138~139쪽.

58) 李基白 편, 『浮石寺祖師堂棟樑記』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일지사, 1987, 235~236쪽.

한편 해인사는 강화경관 조성사업에 사용되는 관목의 원자재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도 갖추고 있었다.<sup>59)</sup> 해인사는 강화경관을 만든 나무의 대부분으로 전국에 분포한 산벚나무와 돌배나무<sup>60)</sup>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가야산 일대에는 경관의 일부 관목으로 사용된 거제수나무가 흔히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관의 관목은 해인사가 선종 6년 2월 『天台四教儀』의 경관과 숙종 3년 『大方廣佛華嚴經(晋本)』 경관의 조성과 더불어 고종 23년 6월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의 경관을 조성할 때도 확보하여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해인사는 13세기 중엽 강화경관의 조성사업에 활용되는 경관 관목의 원자재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인사의 지리적 입지도 관각공간으로의 재편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해동을 차지한 지 수백 년이다. 처음에는 國史를 가야산의 해인사에 간직하였는데, 대개 후세의 난리를 만나서 잃어버릴까 염려해서이다. 가야산은 나라에서 가장 멀고 험하며, 해인사는 가야산에서도 가장 후미지면서 깊고 험하다. 그러므로 나라에 변고가 있어도 병란이 일찍이 미치지 않았으니 祖宗의 생각이 원대한 것이었다. 근자에는 왜적을 제압하는 일에 규율을 잃어 왜적들이 주·현을 깊이 노략질하면서 가야 지역도 거의 지킬 수 없었다. 洪武 기미년(우왕 5년 ; 1379) 가을에 그 국사를 善州의 得益寺로 옮겨 날랐다.<sup>61)</sup>

가야산 해인사는 고려의 건국 이래 우왕 5년(1379) 왜구의 가야산 침략 이전까지 지리적 입지 조건이 안전 지대였다. 이러한 조건으로 고려 조정이 國史라고 하는 역대실록 등<sup>62)</sup>을 해인사에 보관하였던 것이다. 해인사의 군사적 안전지대라는 입지 조건은 13세기 중엽 몽고 침략 때에도

<sup>59)</sup> 박상진, 앞의 책, 184~185쪽.

<sup>60)</sup> 강화경관의 나무 종류는 산벚나무류와 돌배나무류가 각각 70%·1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 나무는 북쪽의 추운 지방을 제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비교적 흔히 자라는 수종이다. 이에 비해, 후박나무와 굴거리나무도 사용되었는데, 그 비율이 8%·1%정도이며, 분포지역이 남부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이다(李泰寧 編, 앞의 책).

<sup>61)</sup> 本朝有海東數百年. 初藏國史于伽耶之海印, 盖慮後世遭亂而墜失也. 伽耶在國最遠而險, 海印在伽耶最僻而深阻. 國家雖有變, 而亂未嘗及焉. 祖宗之慮遠矣. 比者制倭失律, 深寇州縣, 伽耶幾不守. 洪武己未秋, 輸其史于善[州]之得益(權近, 『送裴仲員修撰曬史七長寺序[規]』, 『東文選』 권90, 序 및 『陽村文集』 권16, 序類 및 『新增東國輿地勝覽』 권8, 경기, 竹山縣, 佛宇, 七長寺).

<sup>62)</sup>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당시 해인사는 『명종실록』 등 역대실록 이외, 經史·諸書 등도 보관하고 있었다.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당시까지 해인사에 보존된 역대실록 등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인사의 지리적 환경은 13세기 중엽 전면적인 여·몽 전쟁을 벌이는 양상 속에서 몽고 침략의 격퇴를 목적으로 추진된 강화경관 조성기구의 판각공간이 배치될 수 있는 조건으로 상당히 부합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해인사는 당시 중앙에 위치한 대장도감과도 바다나 강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였으며,<sup>63)</sup> 진주목에 설치된 분사도감과도 교통로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각공간으로서 인적·물적 교류에도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해인사는 11세기 말~12세기 중엽 이래, 강화경관의 조성사업이 시작된 당해 연도인 고종 23년 6월까지 강화경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개별 경관의 판각 능력·경험과 더불어 원천 텍스트의 보존 및 교학적 연구 역량, 그리고 경전의 교정과 판하본의 작성 및 경관의 각수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경관의 판목 자원을 효율적으로 가공·제작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도 갖추고 있었다. 또한 몽고 침략으로부터 안전한 지리적 조건이나 환경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경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인적 연계망도 구축하고 있었다. 해인사의 이러한 인적·물적 기반이나 지리적 입지 조건은 13세기 중엽 강화경관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도감 산하의 판각공간이나 협력사원으로 재편·흡수되어 적극 활용되었던 것이다.<sup>64)</sup>

해인사가 강화경관 조성사업의 판각공간 내지 협력사원으로 역할한 구체적인 사례는 전문 각수 大升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3) 해인사는 수로를 통해 강화경에서 개경포(開經浦 :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앞의 낙동강변)에 도착한 이후 육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교통로는 강화경의 해인사 이운로와 관련하여 주목되고 있다.

64) 강화경관 조성사업의 행정조직이나 조성공간 등이 기존의 조직체계나 판각기반을 흡수·활용하였고 이해하고 있으며, 해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다만 해인사가 분사도감 산하의 조성공간이었는지 대장도감 산하의 판각공간이었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다.

金潤坤, 앞의 『高麗大藏經의 造成機構의 刻手의 成分』 논문(1990) ; 앞의 『高麗大藏經의 東亞大本과 彫成主體에 대한 考察』 논문(1996), 97쪽 ; 앞의 책, 185~186·530쪽 ; 崔永好, 앞의 논문(2002) ; 앞의 책(2009), 124~151쪽.

[표 2] 각수 大升의 강화경판 판각사례

순	법명 표기형태	판각 시기	조성 도감 및 판각 수량			출전			
			大藏	分司	총계	경전 이름	권	합	장수
1	大升·大	1238년	8장		8장	摩訶般若波羅蜜經	11	薑	11~18장
2	大升·大	1239년	9장		9장	摩訶般若鈔經	5	河	2~10장
3	大升	1246년	32장		32장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4	溪	1~32장

※ 대장은 대장도감, 분사는 분사도감임.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은 2종의 경판 가운데 동국대본이나, 동국대학교 영인본에는 각수가 생략되어 있어, 해인산판만대장경연구원의 디지털자료를 활용하였다. 大升이 제2·3·5·8·10·12·14·15·18·19·22·24·26·28·30·31장에 음각되어 있으나 4권 전체를 판각하였으므로 판각량을 총32장으로 하였다.

고종 23년 6월 해인사에서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의 경판을 판각한 大升은 같은 왕 25~26년·33년에도 대장도감에서 조성된 『摩訶般若波羅蜜經』 권11과 『摩訶般若鈔經』 권5 및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권4의 경판을 판각하고 있다.<sup>65)</sup> 이처럼 각수 대승은 고종 23년 6월 해인사에서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의 경판을 판각한 이후에도 대장도감판을 판각하고 있다. 그가 해인사의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해인사와 인적 연계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해인사는 당시 대장도감판의 판각공간이나 인적 교류사원으로 역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수 인력 이외, 해인사는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13세기 중엽 당시까지 해인사가 보유하고 있던 경전의 교정 전문 인력 및 판하본의 필사자와 함께 숙종 3년 조성의 『大方廣佛華嚴經(晋本)』,<sup>66)</sup> 『丹本大藏經』 등과 같은 원천 자료도 제공하였을 것이다. 특히

65) 大升은 이들 경판 외에도 고종 24년 12월 崔瑀(崔怡) 발원의 『金剛般若波羅蜜經(大字本)』(국보 206-20호), 13세기 중엽에 조성되었을 『大方廣佛華嚴經(周本)』(국보 206-17호) 권1 등의 경판도 판각하였다.

66) 강화경판에 포함된 3종류의 『大方廣佛華嚴經』은 해인사 등과 같은 화엄종 사원에서 소의 경전으로 소장하였으며, 이들 경판은 13세기 당시까지 고려 불교계에서 발전시켜 왔던 敎學的 전통을 반영하고 국내 사원에서 전래되던 판본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다(崔永好, 앞의 『華嚴宗系列 승려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의 참여』 논문, 1995, 89~94쪽; 앞의 박사학위논문, 64~71쪽; 앞의 책, 2008)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본 『大方廣佛華嚴經(晋本)』도 강화경판

해인사와 같은 화엄종 계열의 소속 승려들인 僧統 天其의 제자들이 보유관에 해당하는 均如 저술의 『釋華嚴旨歸章圓通鈔』를 고종 35년 경주 東泉社에서 교정을 하였듯이,<sup>67)</sup> 해인사 소속의 승려들도 그들의 소의 경전인 3본 화엄경 등을 교정하였을 개연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이 인정된다면, 해인사가 강화경관 조성사업의 판각공간<sup>68)</sup>이나 인적·물적 협력사원으로 역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해인사가 강화경관 조성사업의 판각공간이나 협력사원으로 재편·활용될 수 있었던 계기는 중앙정부 및 대장도감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해인사에는 고종 14년(1227) 『明宗實錄』의 한 부가 보존되었으며, 우왕 5년(1379) 9월 왜구의 침략으로 善山(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군)의 得益寺로 옮길 때까지 歷代實錄·經史·諸書도 보관하고 있었다.<sup>69)</sup> 이처럼 해인사가 역대실록 등을 보존하고 있던 시기에는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해인사로 방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후대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렬왕 때 문신관료로 활동한 洪侃이 쓴 『해인사에 쇄사하러 가는 추옥섬을 보내며』라는 시,<sup>70)</sup> 李穡의 『동년 사공실의 운에 차하여, 사명을 받들고 가야산으로 가는 권 사관을 보내다』라는 시,<sup>71)</sup> 『해인사로 사서를 포쇄하러 가는 이 사관(李伯由)을 전송하다』라는 시,<sup>72)</sup> 그리고 『수찬 중원 배규가 사서를 별에 찌기 위하여 칠장사에 가는데 전송한 서』라는 글<sup>73)</sup> 등에서 중앙 관료가 역대실록을 보관한 해인사 등에 파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앙 관료의 해인사 방문은 역대실록 등을 보존하고 있던 13세기 중엽까지도 지속되었을 것이다.

조성사업의 원천 자료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7) 均如 說, 『釋華嚴旨歸章圓通鈔』(해인사 소장본) 권하, 제44장; 『韓國佛教全書』 제4책, 고려시대편 1,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2, 159쪽.

68) 당시 판각공간에는 전문 각수 이외, 판하본의 필사자 및 경전의 교정 전문가까지 포함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이 함께 배치되었을 수도 있다. 고종 35년(1248) 全光宰가 주도하여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 3권을 진주목 분사도감에서 조성할 때 그 판각공간에서 간사 天其이 경전 전문 교정자와 판하본의 필사자 및 각수들을 모집(『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 권3, 庭函, 제38장, 全光宰誌)하였듯이, 해인사의 판각공간에도 해인사의 기존 전문 인력들이 함께 배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69) 『고려사』 권22, 고종 14년, 9월 및 권134, 우왕 5년 9월.

權近, 『送裴仲員修撰曬史七長寺序規』, 『東文選』 권90, 序; 『陽村文集』 권16, 序類; 『新增東國輿地勝覽』 권8, 경기, 竹山縣, 佛宇, 七長寺.

70) 洪侃, 『送秋玉蟾曬史海印寺』, 『東文選』 권6, 七言古詩.

71) 李穡, 『次同年司空實韻送權史官奉使伽耶山』, 『牧隱詩稿』 권4, 詩.

72) 『送李史官[伯由]晒史海印寺』, 『陽村集』 권2, 詩.

73) 權近, 『送裴仲員修撰曬史七長寺序』, 『東文選』 권90, 序.

이 교류 과정에서 중앙의 조정은 해인사의 현황과 여러 역량이나 기반을 파악하였을 것이며, 이로써 중앙조정은 경관의 조성 역량과 경험을 가진 해인사를 강화경관 조성사업의 판각공간으로 재편·활용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해인사가 판각공간으로 재편·활용되는 과정에서는 강화경관의 조성사업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한 天其의 역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4)</sup> 天其는 당시 均如 계열의 화엄종 사원인 開泰寺 등을 비롯하여 가야산 해인사에서도 활동하면서,<sup>75)</sup> 해인사의 전반적인 실태나 경관의 조성 능력 등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는 국왕 고종과 더불어 강화경관 조성사업을 주도한 인물들과도 인적 연계망을 형성·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강화경관의 조성사업이 진행되던 고종 25년(1238) 僧統으로 內道場의 殿主<sup>76)</sup>를 맡고 있었는데, 내도량이 궁궐 내에 설치하여 국왕이 주도하는 도량<sup>77)</sup>이므로, 국왕과 접촉할 수 있었다. 또한 천기는 『大藏刻板君臣祈告文』<sup>78)</sup>을 작성하여 강화경관 조성사업의 이론적 토대 내지 정당성을 제시한 李奎報와도 교류하였으며,<sup>79)</sup> 조성사업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한 開泰寺의 僧統 守其(守眞)와도 均如 직계의 法兄弟<sup>80)</sup>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수기는 강화경관 조성사업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아 경전의 교정을 총괄하면서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30권의 저술 책임을 맡았으며,<sup>81)</sup> 대장도감의 최고 직책인 別監이나 그 아래의 使의 직제를 담당하였을<sup>82)</sup> 개연성도 있다. 이처럼 천기는 국왕과 더불어 강화경관 조성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한 이규보 및 승통 수기 등과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천기는 해인사의 경관 조성 기반이나 능력을 국왕이나 이규보 및 승통 수기

74) 해인사가 판각공간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고려사회에서 불교계의 업무를 총괄하던 僧錄司의 역할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75) 崔柄憲, 『高麗時代 華嚴學의 變遷』, 『韓國史研究』 30, 한국사연구회, 1980; 蔡尙植, 앞의 책, 18·200~201쪽.

76) 予亦聞之, 次韻和成九首, 奉寄殿主內道場天其僧統(李奎報, 『次韻諸君所賦山呼亭牡丹[并序]』, 『東國李相國後集』 권3, 古律詩).

77) 泰和戊辰, 旱甚, 上迎入內道場說法(李奎報, 『故華藏寺住持王師定印大禪師追封靜覺國師碑銘[奉宣述]』, 『東國李相國集』 권35, 碑銘·墓誌 및 『東文選』 권118, 碑銘).

78) 李奎報, 『大藏刻板君臣祈告文』, 『東國李相國集』 권25, 雜著.

79) 予亦聞之, 次韻和成九首, 奉寄殿主內道場天其僧統(李奎報, 『次韻諸君所賦山呼亭牡丹[并序]』, 『東國李相國後集』 권3, 古律詩).

80) 崔柄憲, 앞의 논문; 蔡尙植, 앞의 책, 18·200~201쪽.

81)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30권(俊~密函)의 각 권, 제1장; 『補閑集』 卷下, 開泰寺僧統守眞.

82) 崔永好, 『13세기 중엽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운영형태』, 『石堂論叢』 43,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9, 167쪽; 앞의 책(2009), 81쪽.

등에게 전달되어 해인사를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판각공간이나 협력사원으로 재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천기는 沙門을 통솔하는<sup>83)</sup> 僧統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해인사를 판각공간이나 협력사원으로 재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13세기 중엽 세계적 민족문화유산인 강화경판을 조성하면서, 해인사가 분담한 역할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동시에, 강화경판 조성사업에 대한 해인사의 참여의식을 개괄하면서 마무리 말을 대신한다.

강화경판의 개별 경판을 직접 조성한 판각공간은 여러 지역적 공간에 분산적으로 설치·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강화경판과 기타의 해인사 소장 개별 경판 등에 새겨진 각수와 지·발문 자료, 그리고 강화경판의 마구리에 장식된 금속 장식 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사업의 초기에는 몽고 침략으로부터 안전하던 江華京 및 전국의 界首官과 더불어, 고종 23년 당시까지 개별 경판의 판각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온 가야산 下鉅寺 등과 같은 여러 사원들이 대장·분사도감 소속의 판각공간 내지 인적·물적 교류협력공간으로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조성사업의 중반기인 고종 32~33년 전후부터는 기존의 판각조직이 유지되면서 中房(衆房)·東房·西房 등과 같은 새로운 판각공간도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판각공간 내지 협력공간으로 재편된 사원 가운데 주목되는 사원이 가야산에 위치한 하거사와 더불어 해인사이다.

해인사는 11세기 말~12세기 중엽 이래, 강화경판의 조성사업이 시작된 당해 연도인 고종 23년 6월까지 강화경판을 조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나 지리적 입지 조건을 구축하고 있었다. 개별 경판의 판각 능력과 더불어 원천 텍스트의 보존 및 교학적 연구 역량, 그리고 경전의 교정과 판하본의 작성 및 경판의 각수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sup>83)</sup> 德與望之合統沙門, 則謂之僧統(李奎報, 『華嚴業僧統都行教書官誥』, 『東國李相國集』 권34, 教書; 『東文選』 권27, 制誥).

선종 6년 2월 『天台四教儀』의 경판과 숙종 3년 『大方廣佛華嚴經(晋本)』 경판 및 고종 23년 6월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의 경판 등을 조성한 경험에 있었으며, 『大方廣佛華嚴經(晋本)』과 『丹本大藏經』 인경 자료도 보관하여 다양한 불교학 영역의 교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大升과 같은 전문 각수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경판의 판목 자원을 효율적으로 가공·제작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과 더불어, 몽고 침략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나 환경도 갖추고 있었으며, 경판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인적 연계망도 구축하고 있었다.

해인사의 이러한 인적·물적 기반이나 지리적 입지 조건은 13세기 중엽 강화경판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도감 산하의 판각공간이나 인적·물적 자원의 협력사원으로 재편·흡수되어 적극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전문 각수 大升의 활동 사례에서 확인된다. 고종 23년 6월 해인사에서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 경판을 판각한 이후, 같은 왕 25~26년·33년에는 대장도감에서 조성된 『摩訶般若波羅蜜經』 권11과 『摩訶般若鈔經』 권5 및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권4의 경판을 판각하였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인사는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과정에서 경전의 교정 전문 인력 및 판하본의 필사자와 함께 『大方廣佛華嚴經(晋本)』 및 『丹本大藏經』 등과 같은 원천 자료도 제공하였다고 짐작된다.

해인사가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판각공간이나 협력사원으로 재편·활용될 수 있었던 계기는 강화경의 중앙정부나 대장도감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더욱이 재편 과정에서는 해인사와 같은 화엄종 均如 계열 소속의 고승으로 해인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僧統 天其가 중요 매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천기는 국왕과 더불어 강화경판 조성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한 李奎報 및 승통 守其 등과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3세기 중엽 당시 해인사의 경판 조성 기반이나 능력을 국왕이나 이규보 및 승통 수기 등에게 전달되어 해인사를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판각공간이나 협력사원으로 재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천기는 沙門을 통솔하는 僧統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해인사를 판각공간이나 협력사원으로 재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해인사가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판각공간 내지 협력사원으로 참여한 배경은 그들의 현실인식과 더불어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의 경전 줄거리와 誌文의 내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84)</sup> 우선, 13세기 중엽 모든 고려 사람들의 염원과 마찬가지로 잔혹한 몽고침략과 파행적인 최씨무인정권이라는 민

족적 위기와 현실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실천에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몽고의 침입으로 훼손되고 있던 동아시아지역의 불교문명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화엄종단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교학적 능력을 반영하여 보급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인사는 불교계의 종단이나 세속사회의 계층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배타적 경향을 극복하여 포용하려는 의지도 있었다. 이외, 몽고 침략에 따른 당대 사람들의 기근이나 질병을 제거하기 위한 염원과 실천 노력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13세기 중엽 해인사는 강화경관의 조성사업을 통해, 사원 본연의 국가·사회적인 책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전통불교문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 투고일 2012년 2월 1일 | 심사완료일 2012년 2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2일 ■

---

84)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음 글에서 분석되었다.

崔永好, 앞의 논문(2002) ; 앞의 책(2009), 141~151쪽.

## 참고문헌

### 원천 자료

- 『舍利弗阿毗曇論』  
『根本薩婆多部律攝』  
『阿毗達磨識身足論』  
『阿育王經』  
『破邪論』  
『南海寄歸內法傳』  
『高麗國新雕藏經校正別錄』  
『釋華嚴旨歸章圓通鈔』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  
『大方廣佛華嚴經(晉本)』  
『金剛般若波羅蜜經(大字本)』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이상의 경전은 해인사 소장본)  
『三國遺事』  
『고려사』  
『東國李相國集』  
『補閑集』  
『東文選』  
『陽村文集』  
『止浦集』  
『牧隱詩稿』  
『新增東國輿地勝覽』  
『韓國寺刹事典』 下(權相老, 退耕堂權相老博士全書刊行委員會, 梨花文化出版社, 1994)  
『韓國佛教全書』 제4책(고려시대편 1,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2)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李基白 編, 1987, 일지사)  
국가기록유산 : <http://www.memorykorea.go.kr>

### 저서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탐구당, 1974.

- 黃壽永·文明大, 『高麗禪源寺址 發見과 高麗大藏經板의 由來』 『江華島學術調查報告書』 1책, 東國大學校 江華島學術調查團, 1977.
- 成均館大學敎 中央圖書館, 『古書目錄』, 1979.
-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1984.
- 손영중·조희성, 『조선수공업사』, 공업출판사, 1990.
-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 千惠鳳, 『韓國 書誌學』, 민음사, 1991.
- 伽山 李智冠 편저, 『伽倻山海印寺誌』, 伽山文庫, 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1992.
- 金煥泰, 『韓國佛敎古典名著의 世界』, 민족사, 1994.
- 蔡尙植, 『국역高麗國新雕藏經校正別錄研究』, 동국대학교 역경원, 1994.
- 許興植,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일조각, 1994.
- 慶尙南道, 『慶尙南道文化財大觀(國家指定編)』, 1995.
- 金光植, 『高麗武人政權과 佛敎界』, 민족사, 1995.
- 李泰寧 編, 『八萬大藏經板 보존을 위한 기초 학술 연구』, 海印寺, 1996.
- 崔永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刻成事業의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1998.
- 金潤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2002.
- 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 경인문화사, 2006.
- 朴相珍,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 김영사, 2007.
- 朴相國 외,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日本 大谷大學 所藏 高麗大藏經-』,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崔永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_\_\_\_\_,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조성기구와 판각공간』, 세종출판사,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9.

#### 논문

- 妻木直良, 『契本に於ける大藏經雕造の事實を論』, 『東洋學報』 2, 1912.
- 徐首生, 『海印寺의 寺刊 藏經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6, 1969.
- 崔凡述, 『海印寺寺刊鏤板目錄』, 『東方學志』 11, 연세대학교, 1970.
- 文明大, 『大藏都監禪源寺址의 發見과 高麗大藏經板의 由來』, 『韓國學報』 3, 1976.

- 崔柄憲, 「高麗時代 華嚴學의 變遷」, 『韓國史研究』 30, 한국사연구회, 1980.
- 朴相國, 「慶南의 寺刹所藏 經板考」, 『文化財』 15, 문화재관리국, 1982.
- 張忠植, 「韓國寫經目錄」, 『佛教美術』 7, 1983.
- 吳龍燮, 「高麗國新雕藏經校正別錄研究」, 『書誌學研究』 창간호, 서지학회, 1986.
- 俞瑩淑, 「崔氏武人政權과 曹溪宗」, 『白山學報』 33, 1986.
-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 문화재관리국, 1987.
- 蔡雄錫, 「高麗時代 香徒의 社會的 性格과 變化」, 『國史館論叢』 2, 국사편찬위원회, 1989.
- 金甲周, 「高麗 大藏都監 研究」, 『不聞聞』 창간호, 영취불교문화원, 1990.
- 金潤坤, 「高麗大藏經의 造成機構의 刻手의 成分」,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상, 碧史李佑成教授停年退職紀念, 1990.
- 許興植, 「高麗高宗官版大藏經의 雕成經緯와 思想性」, 『歷史教育論集』 13·14합, 1990.
- 藤田亮策, 「海印寺雜板攷」, 『朝鮮學報』 138, 朝鮮史學會, 1991.
- 文暲鉉, 「高麗大藏經 雕造의 史的 考察」, 『佛敎와 역사』, 李箕永博士古稀紀念論叢, 1991.
- 朴相國, 「大藏都監의 板刻性格과 禪源寺 問題」, 『韓國佛敎文化史』 상,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 1992.
- 金潤坤,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체제에 관한 一考」, 『釜山女大史學』 10·11합, 부산여자대학교(현 신라대학교), 1993.
- 崔永好, 「華嚴宗系列 승려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의 참여」, 『釜山史學』 29, 부산사학회, 1995.
- 金潤坤, 「高麗國 分司都監과 布施階層」, 『民族文化論叢』 1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_\_\_\_\_, 「高麗大藏經의 東亞大本과 彫成主體에 대한 考察」, 『石堂論叢』 2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6.
- 朴相國, 「대장도감과 고려대장경판」, 『한국사』 21, 국사편찬위원회, 1996.
- 정동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造成의 參與僧侶層과 對蒙抗爭」, 『嶠南史學』 7, 영남대학교, 1996.
- 배상현, 「高麗國 新雕大藏校正別錄과 守其」, 『民族文化論叢』 1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 崔永好, 「南海地域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참여」, 『石堂論叢』,

- 2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7.
- \_\_\_\_\_, 『海印寺 所藏本 『大方廣佛華嚴經疏』·『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의 판각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 한국중세사학회, 1997.
- 金潤坤, 『『高麗大藏經』 조성의 참여계층과 雕造處』, 『人文科學』 12,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 朴相珍, 『고려대장경판의 재질로 본 판각지에 대한 고찰』, 『人文科學』 12,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 천혜봉, 『高麗 典籍의 集散에 관한 研究』, 『고려시대연구』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 崔永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刻成事業의 주도층』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金潤坤教授停年紀念, 2001.
- \_\_\_\_\_,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의 발전기반과 그 운영』, 『國史館論叢』 95, 국사편찬위원회, 2001.
- \_\_\_\_\_, 『13세기 중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刻成事業과 海印寺』, 『한국중세사연구』 13, 한국중세사학회, 2002.
- 金潤坤, 『고려 '國本'대장경의 혁신과 그 배경』, 『民族文化論叢』 2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3.
- 金聖洙, 『13世紀 前期 刊行佛書의 分析』, 『書誌學研究』 27, 2004.
- 柳富鉉, 『高麗再雕大藏經에 收容된 契丹大藏經』,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4.
- 崔然柱, 『『高麗大藏經』 刻成人의 참여형태와 彫成空間』, 『한국중세사연구』 16, 한국중세사학회, 2004.
- \_\_\_\_\_, 『修禪社와 강화경판 『고려대장경』 彫成』, 『大丘史學』 81, 대구사학회, 2005.
- 崔永好, 『13세기 중엽 경주지역 分司東京大藏都監의 설치와 운영형태』, 『新羅文化』 2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 \_\_\_\_\_,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조성사업에 대한 근대 100년의 연구사 쟁점』, 『石堂論叢』 4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9.
- \_\_\_\_\_,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31, 한국중세사학회, 2011.

Abstract

The Role of Haein - sa(海印寺) Temple as the Site for  
the Carving of the Ganghwa Woodblock(江華經板)  
-Koryo Tripitaka(高麗大藏經)

Choy Young-ho

This paper attempts to shed light on Sites for the Carving of the Ganghwa Woodblock-Koryo Tripitaka and the crucial role the Temple played in creating the Ganghwa Woodblock-Koryo Tripitaka in the mid-13<sup>th</sup> century.

Much evidence is present that individual carving workshops run by temples, such as Haein-sa and Hageo-sa(下鉅寺 or 下鋸寺) Temples in Mt. Gaya(伽耶山), accumulated sufficient experiences in woodblock printing of the Buddhist scriptures well before the project for the second edition of Ganghwa Woodblock-Koryo Tripitaka commenced in 1236, and that their expertise was promptly enlisted by the National Printing Woodblock Agency in an early stage. and it can be said with a reasonable certainty that in 1245~1246, minimum of 3 carving workshops(中房·東房·西房) wer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National Printing Woodblock Agency. Also, as of 1247,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the Jinju(晉州) Regional Printing Woodblock Agency operated at least 2 workshops in Jinju and Namhae(南海). The case of Haein-sa Temple in particular deserves much interest.

Haein-sa Temple in the mid-13<sup>th</sup> century was well qualified to be the site for the carving of the Ganghwa Woodblock-Koryo Tripitaka in terms of the skills of printing personnel, the adequacy of material resources and the advantages of geography, which were all believed to be put to good use by the National Printing Woodblock Agency.

Haein-sa Temple's involvement would have been assured with the

existence in its library of the 1098 edition of the *Flower Garland Sutra*(大方廣佛華嚴經 : 晋本) and the Khitan Tripitaka(丹本大藏經) alone, which were used as the resource materials for the Tripitaka.

As a result, The project of carving the Ganghwa Woodblock-Koryo Tripitaka in the mid-13<sup>th</sup> century was an opportunity for Haein-sa Temple to faithfully perform its religious and social obligations to the country, while creatively developing the Buddhist culture and tradition.

Key Words : the Ganghwa Woodblock(江華經板)-Koryo Tripitaka(高麗大藏經), The Koryo-Dynasty's Daejangdogam(高麗國大藏都監 : The National Printing Woodblock Agency), The Koryo-Dynasty's Bunsadaejangdogam(高麗國分司大藏都監 : The Regional Printing Woodblock Agency), Haein - sa (海印寺) Temple, the carving workshop of the middle(中房), the carving workshop of the east(東房), the carving workshop of the west(西房), the carving workshops.

